Ch 카톡에서 대한성서공회 채널 추가하세요

성경 후원하기

빛나는 선물, 성경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마주하는 수많은 유혹과 위협 가운데
성경은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얻고,
불안한 일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외로움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합니다.

삶에서 더욱 **빛나는 선물, 어린이 그림 성경**을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선물해 주세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접한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이 주시는 희망 속에
견고한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 담발레 아마 바루(Dembele Emma Ballo)
말리성서공회 어린이 성경 캠프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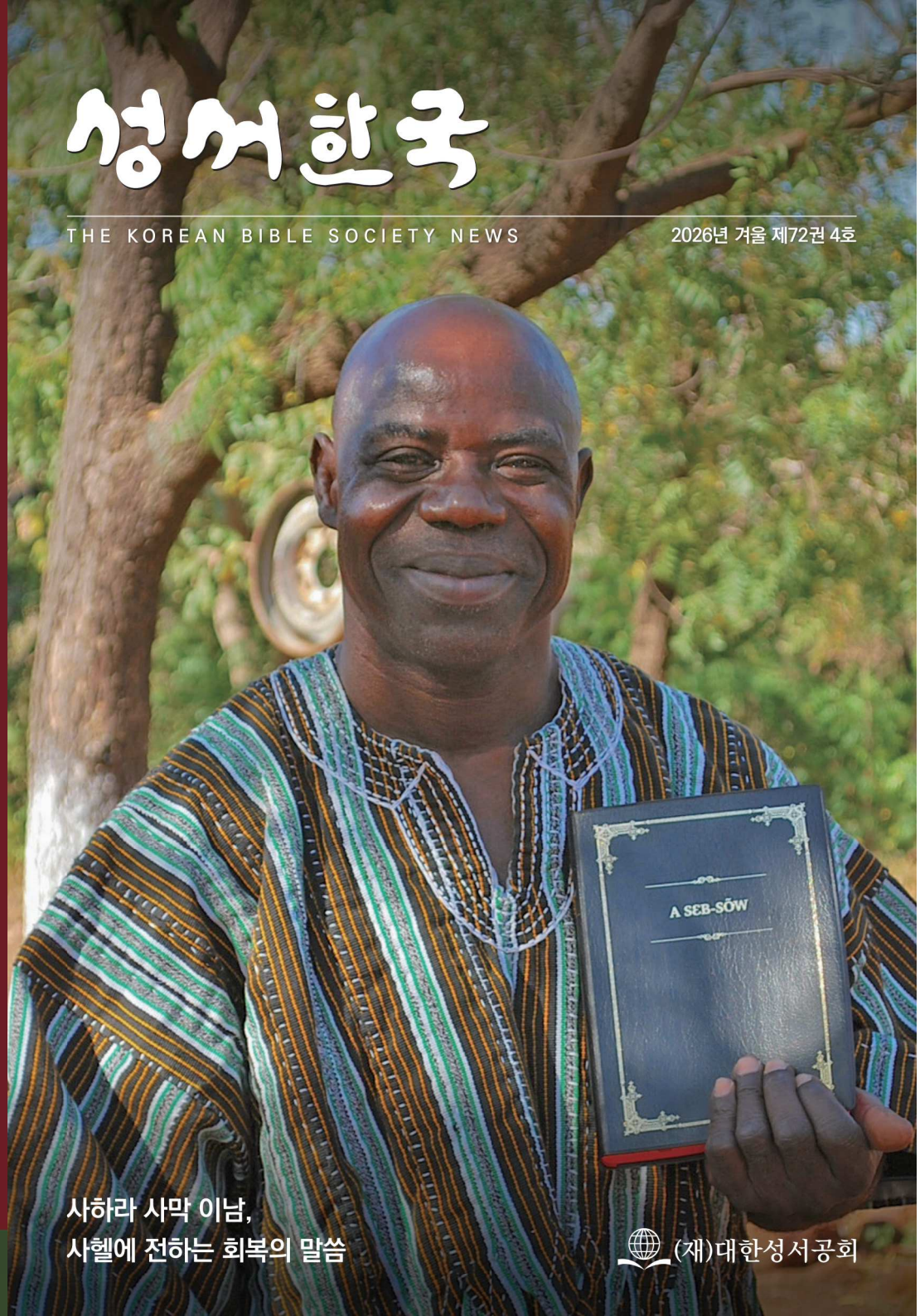


후원 문의 080-374-3061(수신자 부담) www.bskorea.or.kr
후원 계좌 농협은행 355-0025-0990-53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 (재)대한성서공회)

(재)대한성서공회

성서한국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2026년 겨울 제72권 4호



사하라 사막 이남,
사헬에 전하는 회복의 말씀

(재)대한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
성경 기증 프로그램

THE KOREAN BIBLE SOCIETY





성경이 닿은 자리마다 세워진 교회

한국교회 초기 권서들은
구석까지 성경을 전하기 위해
많은 성경을 나귀에 싣고
장터와 산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전해진 한글 성경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어려운 시절 우리 민족에게
참된 위로와 자유, 소망이 되었던 성경.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계속되는
성경을 전하는 발걸음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회원님이 보내주신 헌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해외 성경 지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성서공회들을 돕는 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역 프로젝트 지원
아직도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부족들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첫 번역'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자교실 & HIV/AIDS 치유 프로그램 지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자교실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에이즈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보급합니다.

국내 성경 지원
국내 미자립교회, 선교회, 복지 시설 등에 성경, 신약, 단편, 전도지 등을 보급합니다.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헌금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와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 **www.bskorea.or.kr**

성서한국

2026년 겨울 제72권 4호

02 **포토에세이**
우리 가족 첫 성경

04 **2026 성서 사업 보고**

06 **커버스토리**
사하라 사막 이남,
사헬에 전하는 회복의 말씀

10 **2026 해외 성서 기증 현황**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75개 나라에
1,275,013부의 성경을 보냈습니다!

12 **후원 보고**
소말리아에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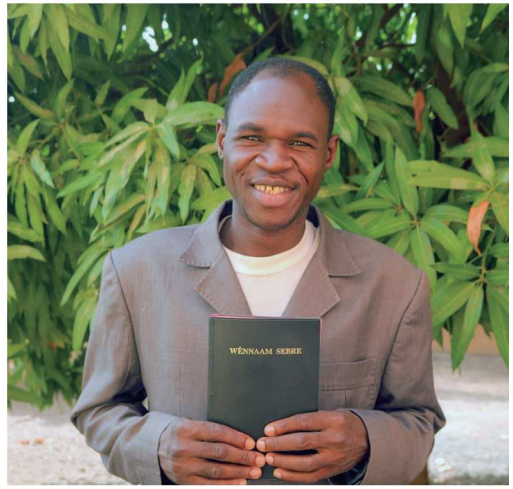
14 **『새한글성경』**
비기독교인 대학생에게도 알기 쉬운
『새한글성경』

16 **현장 이야기**
나사어(Nasa) 첫 번역 성경 봉헌 예식,
그 이후 이야기

18 **첫 번역 성경 프로젝트**
게바(Geba) 부족,
모국어 성경 후원을 기다립니다

21 **나의 삶을 바꾼 말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22 **후원 이야기**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회원국으로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의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소 : (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7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26년 12월 31일
· 인쇄인·인쇄처·편집 : (주)타라티피에스
- https://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본지는 도서잡지 윤리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품)
-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 회원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 자녀와 함께 성경을 받은 보아네르게스(Boanerges)

우리 가족 첫 성경

니카라과 원주민 보아네르게스(Boanerges)는
농사를 지으며 세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가는 빠듯한 형편에
성경을 사는 일은 엄두조차 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니카라과성서공회의 성경 모임을 통해
성경을 선물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던 그에게,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게 된 것은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전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그는 품에 안은 아들을 바라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 성경을 아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이 감격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성경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지진, 가난과 재난이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후원회원님의 기도와 후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전하는 사역에 한결같이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내 성서 보급 사업과 성경플랫폼

금년 349,446부의 성경을 보급하였으며, 본문을 절별로 편집해 가독성을 높이고 해설과 지도·연대표 등 다양한 자료를 함께 수록한 『취리히성경해설』 절별편집본을 출간하여 성경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공인역 성경, 『새한글성경』이 교회 현장에 꾸준히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도림교회, 수원성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영안교회 등 여러 교회에서 『새한글성경』을 교회학교 예배용 성경으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안산제일교회에서는 『새한글성경』을 공동체성경읽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한글성경』으로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성경플랫폼은 이들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공개한 성경플랫폼(https://bible.bskorea.or.kr)에는 하반기 동안 '성경 개관', '성경 장르별 서문', '성경 읽기표' 등의 콘텐츠를 새로 추가하여, 이용자들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성경을 계획적으로 읽어 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외 성서 보급 사업

금년에는 101개 나라에 148개 언어로 4,092,549부의 성서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1973년 해외 성서 보급을 시작한 이래 총 206,982,715부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전쟁, 국가간 분쟁 등 국제 정세의 심각한 변화와 그에 따른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본 공회는 수출 성서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자매성서공회로부터 성서 조판을 요청받아, 금년에는 과라니어 성경(파라과이), 음바이어 개정 성경(차드), 소말리어 신약성경(소말리아), 움분두어 성경(앙골라) 등을 조판하였고, 2009년 이후 현재까지 233개의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13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그림 성경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가족'을 여러 언어로 계속 조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성경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외 성서 기증 사업 및 이를 위한 모금사업

본 공회에서는 세계 성서 운동을 위해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성경 제작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75개 나라에 1,275,013부의 성서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기증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께서 국내외 성서 사업을 위해 지난해보다 1억 8천여만 원 늘어난 총 62억 6천여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후원에 참여하는 교회와 후원회원은 총 40,135곳(명)이며, 이 중 5백만 원 이상 후원하신 교회·기관·개인은 총 66곳(명)입니다.

특별히 서울광염교회(조현삼 목사)는 2021년부터 금년 7개 나라를 포함하여 총 52개 나라에 342,129권의 성경을 기증하며, '온 세계를 예수의 피 묻은 성경으로 칠한다'는 복음의 열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외에 성경을 보내는 사역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참여해 주시는 한국교회와 후원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개정 작업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개정위원회"는 16개 교단에서 추천한 위원들과 국어 위원들로 구성되어, 개정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경우에는 개정 초안 작업과 교차 검토 작업이 마무리되어, 현재 국어 검토 중입니다. 구약의 경우에는 개정 초안 작업이 마무리되어, 현재 교차 검토 작업을 29%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개역 성경의 전통적인 문체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원문에 비추어서 문장 부호를 전체적으로 부여하고, 너무 긴 문장은 적절히 끊거나 어순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은 원문의 의미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우리말 어법에 맞게 다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대한성서공회 제146회 정기이사회 보고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한눈으로 보는 2026 성서 사업 보고



국내 성서 보급
349,446부의
성서 보급



해외 성서 보급
101개 나라에 148개
언어로 4,092,549부의
성서를 제작하여 보급



해외 성서 기증
75개 나라에
1,275,013부의 성서 기증



후원 헌금
62억 6천여만 원



사하라 사막 이남, 사헬에 전하는 회복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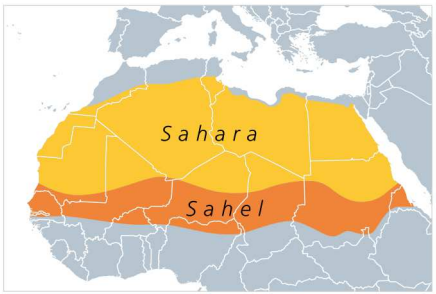
▲무장단체가 지나간 말리의 한 마을

사하라 사막 남쪽 니제르의 카르자구(Karjagou) 마을. 매주 열리는 시장에는 사람이 북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들이닥친 무장단체는 주민들에게 24시간 안에 모두 이 마을을 떠나라고 위협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과 가축, 당장 챙길 수 있는 것만을 들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피난 행렬을 바라보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떠나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직도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 자구올리(DJAGUOLI) 목사/니제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 동서로 길게 이어진 지역이 바로 '사헬'입니다.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말리를 비롯한 여러 아프리카 국가가 걸쳐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최근 알카에다와 IS에 연계된 무장단체의 활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분쟁 데이터 기관 ACLED에 따르면 말리·부르키나파소·니제르 3개국에서 지하디스트 단체가 관련된 폭력 사건은 2016년 63건에서 2025년 2,845건으로 늘었고, 2026년에는 9월 중순까지 2,145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사헬 지역



▲성경 기반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니제르성서공회

무장단체의 존재는 평범한 일상까지 무너뜨립니다. 주민들은 살던 마을을 떠나야 하고, 성도들은 예배드리러 가는 길에서도 안전을 걱정해야 합니다. 무장단체를 피해 도망친 뒤에도 생계를 꾸려야 하는 막막함과 폭력이 남긴 두려움은 계속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국경을 맞댄 **사헬 지역 성서공회들은 지역 교회와 연합하여 상처 입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수로 믿음을 지켜가는 니제르

니제르 인구의 약 80%는 무슬림이며,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지극히 소수입니다. 니제르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이유로 차별과 폭력을 당하며, 교회와 신앙 공동체도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슬림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가족과 이웃의 압박까지 견뎌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니제르성서공회는 박해와 무장단체의 테러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성경 기반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사회적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차별과 위협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 가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앞서 피난 행렬을 지켜보았던 자구올리(DJAGUOLI) 목사도 이 회복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제 아픔과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키리라 믿습니다."

- 자구올리(DJAGUOLI) 목사/니제르

글을 배우며 말씀을 만나는 부르키나파소

부르키나파소에서는 무장단체의 폭력으로 고향을 떠나는 주민이 늘었고, 어떤 지역에서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도 안전을 걱정해야 합니다. 북동부 야가(Yagha) 지역에서는 교회의 한 장로가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숨진 뒤 주민들이 급히 마을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생계와 안전이 먼저이기에 글을 배우는 일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이로 인한 불편함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약 60개의 토착 언어가 쓰이지만 학교 교육은 대부분 프랑스어로 이루어지기에, 문맹률은 약 60%(2021년 기준)에 이릅니다.



▲ 부르키나파소성서공회 성경 기반 문자 교실 현장

부르키나파소성서공회는 글을 읽지 못하는 이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성경 기반 문자 교실을 운영합니다. 한 아이의 어머니인 미리암 구바(Miriam GOUBA)도 이 교실을 통해 성경으로 글을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짧고 쉬운 성경 구절부터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날을 간절히 기다려 왔기에 그때가 가장 기뻤습니다. 저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이제는 저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미리암 구바 (Miriam GOUBA)/ 부르키나파소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는 말리

무장단체의 폭력과 위협은 말리의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특히 말리 중부와 북부에서는 무장단체가 통행을 막고 마을을 압박하면서 많은 주민이 고향을 떠나 피난민이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러 가는 길조차 안전을 장담할 수 없고, 위험에서 벗어난 뒤에도 폭력의 두려움은 사람들의 마음에 너무나 짙게 남습니다.

말리성서공회는 취약계층에게 성경을 보급하며, 성경 기반 회복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두려움을 내려놓고 회복의 길을 걷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고이타(GOÏTA)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 말리 코로(Kora)지역에서의 성경 보급

"교회 집회에 참석하던 길에 테러리스트들에게 붙잡히는 일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곧 풀려났지만, 그 경험은 제 안에 두려움으로 남았고, 그때가 떠오를 때마다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 때 만난 성경 기반 회복 사역은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용서'에 대한 강의를 들은 이후 평안을 얻게 되었고, 두려움과 불안에서도 점차 자유로워지며, 비로소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고이타(GOÏTA) 목사/말리

박해와 무장단체의 위협이 일상이 된 사헬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 이에게는 피난처가, 두려움에 갇힌 이에게는 회복이, 홀로 믿음을 지키는 이에게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됩니다.** 어둠 속에서도 번져 가는 말씀의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이 사역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 34:18)

10만 원을 헌금하시면 10명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헬 지역에 보내는 컨테이너에 성경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75개 나라에 1,275,013부의 성경을 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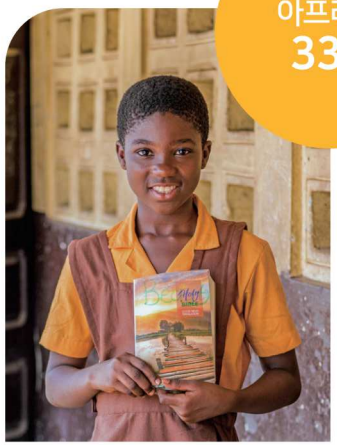
· 성경이 발송된 나라 (2026. 10. 31. 기준)

*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께서 후원하신 성경은 전 세계 미자립 성서공회들의 성경 기증 프로그램 및 성경 보급 사역 지원에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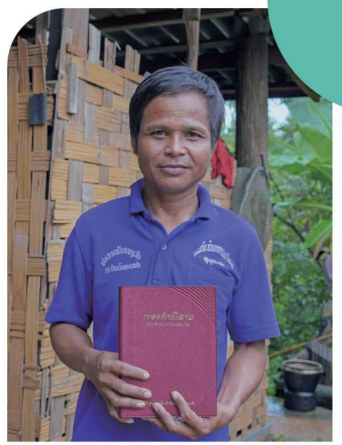
아메리카 18개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아프리카 33개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나미비아, 니제르,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세이셸, 소말리아,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우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아시아 · 태평양 10개

남태평양, 대만, 라오스,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유럽 · 중동 14개

그리스, 레바논, 리투아니아, 몰도바,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소말리아에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성경을 실은 낙타 도서관과 소말리아 어린이들

서울장신대학교 동문과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말씀을 갈망하는 땅, 소말리아에 〈소말리어 신약성경〉 10,000부를 발송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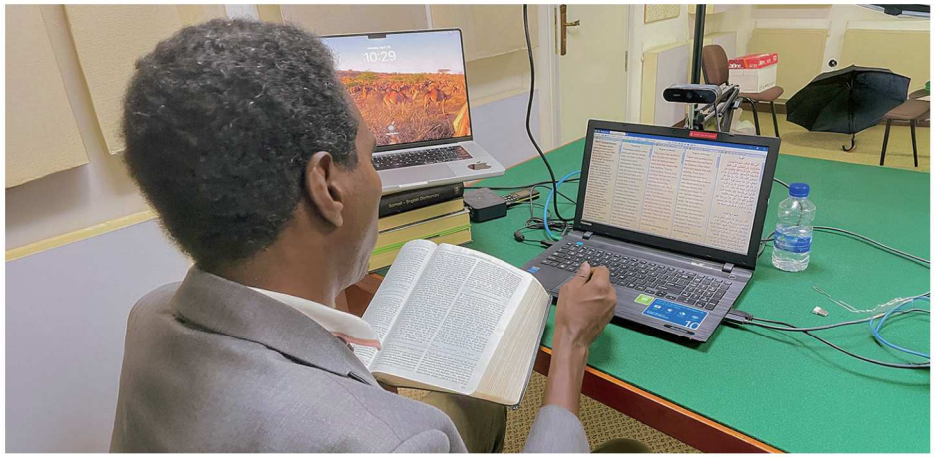
▲소말리아 성경 기증 예식 현장(2026. 9. 18.)

기존 소말리어 성경은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단어와 문법 그리고 여러 방언이 혼용되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말씀은 성경 교육과 신앙 훈련의 어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소말리어 새번역 신약성경은 말씀의 의미를 더욱 정확하고 쉽게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배우고 이해하게 된 소말리아 성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전함으로써 다음 세대는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기다려 온 소말리아 성도들

소말리아는 오랜 내전과 이슬람 극단주의의 영향으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국내외로 흩어진 소말리아의 성도들은 소규모 모임과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을 이어왔습니다. 현지 교회 지도자들은 말씀 전파와 신앙 훈련을 위해 현대 소말리어로 번역된 성경이 보급되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소말리아 새번역 신약성경 번역 작업 중인 현지 모습

그렇기에 이번 성경 후원은 말씀을 기다려 온 소말리아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에 응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로 연결하고, 소말리아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자립해 가는 데에도 귀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 "이곳은 복음에 저항하는 땅이지만,
> 성령의 바람은 막을 수 없습니다.
> 우리는 숨어 예배드리지만,
> 우리의 믿음은 그 어느 때보다
> 살아있습니다."
>
> - 알리(Ali, 가명), 소말리아 디아스포라

제작된 성경은 11월 25일 현지에 도착해 성도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기다려 온 소말리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소말리아 현지뿐 아니라 전 세계 흩어져 살아가는 소말리아 디아스포라에도 차례대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소말리아 성도들의 믿음을 다음 세대로 잇는 다리가 되어 복음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여정에 함께해주신 여러분이 있었기에 이 귀한 사역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소말리아 성도들의 곁을 함께 지켜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만나는
후원의 열매,
소말리어 신약성경

비기독교인 대학생에게도 알기 쉬운 『새한글성경』

김대욱(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강사)



▲『새한글성경』을 읽는 다음 세대

대학 강의동의 비상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가벼우면서도 무겁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입생들의 밝은 얼굴을 떠올리면 제 마음도 행복해지고 발길도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성경을 학문의 장소인 강의실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저를 잠시 잡아 두어 시선을 계단 옆 작은 창문으로 옮기게 만듭니다. 유리창 너머로 송도 국제캠퍼스를 활보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간구합니다.

선교 사명을 품고 1885년 조선에 도착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기독교적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힘썼으며, 그의 수고와 헌신은 연세대학교라는 하나의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창립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연세대학교는 교책과목 〈기독교의 이해〉를 개설했으며, 연세대학교 학생은 이 교과목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사회와 문화, 연세의 역사와 정신 등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함께 배우는 〈기독교의 이해〉 시간은, 선교사님의 꿈과 비전이 오늘날에도 살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귀중한 수업 기회를 얻게 되면서 제가 직면한 문제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강의안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수강 인원 60명 중 약 80%를 차지하는 비기독교인 학생들은 기독교를 학문적 관점에서 탐구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업 내용과 방식은 일부 기독교인 학생에게 큰 도전과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고민하며 저는, 신앙 또는 학문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둘 다 함께할 수 있는(또는 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수업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2024년에 출간한 『새한글성경』은 2025년 1학기에 〈기독교의 이해〉 수업을 처음 담당하면서 강의안과 씨름하던 저에게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실제로 수업에서 『새한글성경』은 성경 이야기를 비기독교인 학생도 쉽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창세기 3:2-3

『개역개정』

2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새한글성경』

2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다. "동산의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

3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죽지 않으려면 말이야."

해당 구절의 『개역개정』과 『새한글성경』의 번역을 비교하는 간단한 설문에서, 비기독교인 학생들은 『새한글성경』에 대해 '현대적인 말투와 문장 부호를 사용하여 읽기 편하고 의미 파악을 빠르게 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동화나 연극 같아서 장면을 상상하기 쉬웠다'는 감상도 밝혔습니다. 기독교인 학생들은 '『개역개정』이 익숙하고 무게감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새한글성경』이 이해하기 쉬워 비기독교인도 함께하는 수업에 적절하다'는 견해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설문에 답한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비기독교인 대학생에게도 알기 쉬운 『새한글성경』이 기독교 교양 과목의 교재로 더욱 적합하고 유용하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은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기 위해 하와에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대답하도록 유도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기독교인 학생들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기회가 되고, 비기독교인 학생들에게는 왜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중시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지를 종교적, 사회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업에서 저는 성경 이야기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각각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새한글성경』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강의실에서 함께 성경을 읽고 토론하면서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아가는 데 중요한 교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비기독교인 대학생에게는 난해한 고전이기도 합니다. 이 두 진실을 강의실에서 마주하며 조화롭게 아우르기 위해, 젊은이들을 위한 『새한글성경』을 앞으로도 저는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젊은이들의 마음에 심겨 기독교적 지도자들이 더 많이 나오길 기도합니다.



나사어(Nasa) 첫 번역 성경 봉헌 예식, 그 이후 이야기

▲봉헌 예식에서 나사어(Nasa) 성경을 받은 파에즈(Páez) 부족 모녀

2025년,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콜롬비아 파에즈(Páez) 공동체에 나사어(Nasa)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된 기쁨은 성경 봉헌 예식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50년간 이어진 분쟁으로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겪은 콜롬비아 나사 부족에게 나사어 성경은 말씀이 주는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고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며, 공동체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곳까지 닿아 공동체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성경, 언어와 문화 속에 뿌리내린 믿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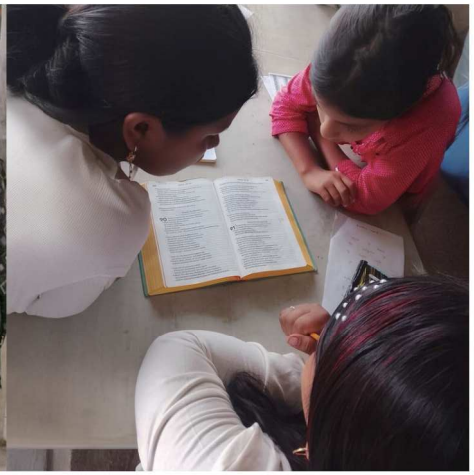
나사어는 단순한 소통의 수단 그 이상입니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이야기와 전통, 삶의 지혜는 물론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고유한 방식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 "나사어는 우리의 역사이자
> 문화이고 정체성입니다.
> 나사어 성경을 받기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
> - 파에즈족 한 형제의 고백 -

소책자에 담긴 말씀만으로 성경을 공부하며 나사어 성경을 기다려 온 이들은 마침내 한 권으로 된 성경을 받아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가 담긴 모국어로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 안에 믿음의 닻을 내려, 문화에 뿌리내린 신앙을 굳건히 지켜갈 수 있게 합니다.



▲성경 모임을 통해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파에즈(Páez) 공동체



▲성경을 읽고 있는 다음 세대

성경, 다음 세대의 정체성과 자긍심

어린이들에게 전해진 나사어 성경은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기초를 세워 갈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뿌리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국어로 전해질 때, 다음 세대는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가 지닌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 "어머니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
> 우리의 언어와 전통을
>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 우리 아이들이 모국어로 말씀을 읽으며,
>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고
>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 바랍니다."
>
> - 로사 잉가(Rosa Inga) -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 경험한 변화는 가족과 이웃, 공동체로 이어집니다. 그 변화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사랑으로, 나사어는 다음 세대의 삶 속에서도 살아 숨 쉬는 믿음의 언어로 이어질 것입니다.



게바(Geba) 부족, 모국어 성경 후원을 기다립니다

▲게바(Geba) 부족 어린이들

전 세계 7,393개의 언어 가운데 성경전서가 번역된 언어는 795개, 신약성경이 번역된 언어는 1,815개로, 대부분의 언어는 아직 온전한 성경을 갖지 못했습니다. 3,272개의 언어는 성경 일부조차 번역되지 않았거나 번역이 진행 중이며, 이 언어를 쓰는 지구촌 이웃들은 1억 2천만 명이 넘습니다. (2025년 기준)

미얀마에도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기다리는 부족이 많습니다. 135개의 소수 부족이 200여 개의 언어를 쓰며 살아가는 미얀마는, 기독교인이 인구의 6%에 불과하지만 국경 지역 소수 민족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한글성경 완역 100주년'을 기념하며 2011년부터 미얀마 소수 부족의 성경 번역과 제작을 후원해 왔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온전한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게바(Geba) 부족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역 개요

미얀마 게바어 첫 번역 성경

거주지역	미얀마 동부, 카렌주·샨주 인근
인구(기독교)	약 4만 6천 명 (80%)
번역 현황	신약 2021년 출간 (구약 번역 중)
번역 예산	5년 예상 (매년 3천만 원)



▲2021년 미얀마 툰구(Toungoo)에서 열린 게바어 신약성경 봉헌 예식

기도와 역경 끝에 도착한 첫 신약성경

게바 부족은 미얀마 동부 카렌(Karen)주와 샨(Shan)주 인근의 깊은 산악지대에 사는 약 4만 6천 명의 공동체입니다. 게바 성도들은 2002년부터 자신들의 언어로 된 말씀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교회의 후원이 연결되어 신약이 완역되었지만, 신약을 갖기까지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성경을 공식적으로 수입할 수 없기에 태국을 거쳐 들여온 뒤, 국경 지역 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전달해야 합니다. 지역의 무력 충돌까지 이어지던 2021년, 첫 게바어 신약성경 3,000부가 현지에 도착하면서 성도들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툰구(Toungoo)의 한 교회에서 열린 봉헌식은 감격과 환희의 자리였습니다. 미얀마성서공회 또한 무력 충돌의 여파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현지에서 보내온 사진에는 모국어 성경을 품에 안은 성도들의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부족이 모국어로 된 성경을 소유할 수 있으리라고는 꿈조차 꾸지 못했습니다."

- 사우 틴 멍 초 (Saw Tin Maung Cho) 목사



온전한 성경을 향한 꿈

게바어로 신약을 읽은 후, 성도들의 모국어 성경에 대한 갈증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찬양과 기도는 게바어로 드리지만, 구약을 설교할 때는 여전히 다른 언어의 성경을 번역해서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바 교회의 청년들과 목회자, 신학교 지도자들은 이 프로젝트의 시작을 위해 십시일반 종잣돈을 모아 한마



▲게바 부족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음으로 구약 번역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2025년, 미얀마성서공회는 번역자 나우 밀타(Naw Milta)와 폴로 크웨이(Polo Kway)와 함께 역사서부터 구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구약이 완성되면 게바 성도들은 고난의 때에 시편으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신학교는 말씀에 기초하여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게바어 성경은 부족의 언어를 지키는 유산이 되고, 신앙을 이어 갈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후원이 미얀마 소수부족 선교의 길을 열어 왔습니다. 게바어 구약이 완역되어 첫 번역 성경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실 교회와 성도님을 기다립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행 16:9)

게바어 구약 번역 성경 프로젝트 및 첫 번역 성경 제작 후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후원 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성경을 들고 말씀을 전하는 조지 사키(George Sackie)

조지 사키(George Sackie)는 성실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사일을 하던 중 팔을 낫에 베여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한쪽 팔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조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 큰 절망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에볼라 대유행이 끝나갈 2016년, 조지는 한 교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문장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은 조지의 삶과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시 에볼라 대유행으로 인해 라이베리아의 수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조지는 여전히 자신이 살아있음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은 한쪽 팔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그에게 자신이 세상을 살아갈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보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엡 2:10)

그날 이후 조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새로운 사명을 품고, 마을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아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기쁨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며, 성경은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일의 증인이 되도록 저를 단련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조지 사키(George Sackie)-

지금도 라이베리아에는 많은 이들이 어둠 속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이베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희망과 회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라이베리아 땅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귀한 동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 성경 보내기

동문교회 – 시리아 〈아랍어 성경〉 제작을 위한 헌금 전달식



▲ 헌금 전달(왼쪽부터 본 공회 김영식 부사장, 동문교회 장천재 위임목사)

2026년 9월 2일, 동문교회(장천재 위임목사)는 시리아에 보내는 아랍어 성경 제작 지원을 위한 후원금(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후원에는 70년 동안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고자 하는 동문교회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헌금 전달식에서 동문교회 장천재 위임목사는 "동문교회가 70주년을 맞아 시리아 성경 보내기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나라보다도 힘겨운 싸움을 하는 시리아에 복음이 담긴 성경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성경이 필요한 곳에 성경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동문교회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리아 땅에 전해질 복음의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들음에서 나는 믿음의 시작, 성경

청주중앙교회 – 남태평양 〈피지어 성경〉 950부 기증



▲ 성경 증정(청주중앙교회 임학용 담임목사)

2026년 9월 15일, 청주중앙교회(임학용 담임목사)의 후원으로 남태평양에 〈피지어 성경〉 95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청주중앙교회는 지난해 창립을 기념하며 르완다에 성경을 보내는 사역을 시작으로, 올해는 설립 80주년을 기념하여 성도들이 남태평양 피지에 성경을 보내는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청주중앙교회 임학용 담임목사는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로 성경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록 작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 말씀을 전하는 이 거룩한 사역을 통해, 한 영혼이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이 입과 마음에 남아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라며, 청주중앙교회가 누린 80년의 은혜를 담아 전하는 성경을 통해 말씀을 받은 남태평양의 피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소망했습니다.

성경,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 영안교회 – 우간다 〈영어 성경〉 5,100부 기증



▲ 성경 증정(왼쪽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총회장 이승수 목사, 본 공회 이사장이자 영안교회 담임 양병희 목사, 본 공회 권의현 사장)

2026년 9월 17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 총회장 이승수 목사)와 영안교회(양병희 목사)의 후원으로 우간다에 〈영어 성경〉 5,10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영안교회는 2019년 가나 성경 보내기에 동참한 이래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와 함께 복음과 소망을 전하는 성경 보내기 사역에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총회장 이승수 목사는 "성경은 새 생명을 얻게 하며,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변화된 삶이 모이면 가정과 사회가 변화되고, 나아가 한 나라와 시대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간다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회와 시대를 열어가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길 소망합니다."라며 성경을 통해 우간다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랐습니다.

소말리아에 흘러갈 위로와 회복, 성경

서울장신대학교, 한국교회 – 소말리아 〈소말리아 신약성경〉 10,000부 기증



▲ 소말리아 성경 기증 예식에 참석한 서울장신대학교 동문 및 한국교회 후원회원

2026년 9월 18일, 서울장신대학교(총장 한홍신 목사)와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소말리아에 〈소말리어 신약성경〉 10,00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후원은 부활절과 개교 72주년을 맞은 서울장신대학교가 교직원과 학교 공동체의 뜻을 모아 진행한 캠페인의 결실이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 동안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서울장신대학교뿐 아니라 한국교회 후원회원들도 뜻을 모아, 현대 소말리어 신약성경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서울장신대학교 글로벌협력처장 이민규 교수는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삶으로 살아내며, 다시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복음이 또 다른 이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소말리아에 전해지는 성경이 많은 영혼에게 복음이 되어 흘러가길 기대했습니다.

성경 보내기, 변화를 위한 중보의 시작

수지선민교회 – 세네갈 〈프랑스어 성경〉 1,240부 기증



▲ 성경 증정(수지선민교회 이건표 담임목사)

2026년 10월 21일, 수지선민교회(이건표 담임목사)의 후원으로 세네갈에 〈프랑스어 성경〉 1,24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수지선민교회는 지난해 서아프리카의 니제르에 〈프랑스어 성경〉 1,550부를 기증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세네갈에 성경을 기증하며 성경 보급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수지선민교회 이건표 담임목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사역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전해지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라고 세네갈 땅에 복음이 널리 전해지고 세네갈을 위한 중보가 계속되길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기쁨, 성경

서울노회남전도회연합회 – 말리 〈프랑스어 성경〉 2,800부 기증



▲ 말리 프랑스어 성경 기증 예식에 참석한 제47회기 서울노회남전도회연합회 회원들

2026년 11월 4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제47회기 서울노회남전도회연합회(회장 김덕현 장로)의 후원으로 말리에 〈프랑스어 성경〉 2,80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서울노회남전도회연합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표어 아래 말리에 성경을 보내는 선교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서울노회남전도회연합회 회장 김덕현 장로는 "성경이 말리 땅에 전해져 무슬림 지역의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이 책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읽고 또 읽으며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성경이 말리 땅 가운데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져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매월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사랑하는 가족, 지인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족, 지인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기쁨을
선물해 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기

홈페이지 —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성서공회 입력하신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02 전화로 가입하기

후원자 전용 전화 — 080-374-3061(수신자 부담)

03 직접 송금하기

후원계좌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 (재)대한성서공회)

국민은행 070-01-0340-570	신한은행 140-009-909678
우리은행 1005-702-311166	수협은행 033-01-085327
농협은행 355-0025-0990-53	우 체 국 011916-01-000076
KEB 하나은행 224-910049-47104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 디모데후서 3:16~17